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 광주의 역사와 혼, 미디어아트로 재탄생

무등산의 탄생부터 정지 장군과 김덕령 장군, 이순신 장군으로 이어지는 의병 정신,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 배경이 된 광주정신까지. 광주의 역사 서사를 미디어아트와 무용, 음악으로 융복합한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공연이 펼쳐진다.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아트주가 제작한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가 5월 2일 오후 4시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

1년에 걸쳐 제작된 이번 작품은 ‘광주의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 시작했다. 미디어아트로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 아래 정현기 아트주 대표가 총괄기획을,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이 총연출을 맡았다. 작곡은 음악감독 이한주, 무용은 마고유니버스무용단이 참여했다.

이번 작품은 가로 길이만 30m로 층고 5m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 VX스튜디오에서 선보여 관객이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미디어아트 영상과 함께 전문 무용수 8명의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면서 시각적, 청각적, 감성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된 신개념 종합예술 무대다.

이 작품은 무등산의 탄생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정신의 흐름을 웅장하고 깊이 있는 서사로 풀어낸다.

시작은 무등산 탄생 설화다. 8700만년전 화산폭발로 생겨난 무등산의 탄생과정을 통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광주사람들의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이어서 정지 장군과 김덕령 장군이 조영된다. 정지 장군은 고려 말기 무장으로 14세기 후반 왜구를 격퇴, 한국 해군의 시조 격인 인물이다. 그의 묘소는 현재 망월동에 위치해 있으며 북구에 그의 시호를 딴 경열로라는 거리명이 있다. 의병장 김덕령 장군 역시 광주 출신의 호국 영웅이다.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 ‘무등, 바다와 대지의~’ 내일 GCC 화산폭발서 비롯 무등산 탄생부터 정지·김덕령 장군 ‘의’ 5·18 계승 융복합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공연

국 영웅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시공을 넘어 광주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쌍벽인 두 장군을 조영해 의병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풀어낸다.

1막 ‘광주의 탄생’에서는 무등산의 탄생설화를 이야기하고 2막 ‘정지 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 장군의 정신과 공을 담았다. 3막 ‘김덕령 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 장군의 정신이 김덕령 장군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4막 ‘임진왜란’에서는 정지 장군과 김덕령 장군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5막 ‘이별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영웅에 대한 애도의 장이다. 6막 ‘광주여 희망이여’는 현대에서 광주정신이 어떻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 배경이자 핵심으로 자리잡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정신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각막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을 서정적이며 다채로운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호국정신과 민중의 저항을 음악과 무용, 현대적 미디어기술을 활용해 몰입도 높은 경험으로 제공한다. 특히 작품속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사운드로 역사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기 아트주 대표는 “무등산에서 시작된 광주정신은 시대마다 재정의되며 역사적 위기마다 빛을 발해왔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광주의 정신을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 “주먹밥 먹으며 광주여성길 걷자”

## 광주여성재단 17~18일 투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여성길 주먹밥 도보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공동체에 헌신한 여성 인물들을 만나는 광주여성길 도보투어와 연계한 5·18 광주정신의 상징 주먹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17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다. 3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광주여성길 사전예약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유선전화(670-0532)로 가능하다. 도보투어에는 여성인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섭렵한 전문해설사가 배정된다.

참가자들은 광주여성길 1코스인 두휴길과 2코스인 백단심길 중 선택해 1시간 30분의 도보투어를 마친 후 주먹밥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여한다.

주먹밥 만들기 체험행사는 광주여성친화마을에서 주관하며, 광주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은

여성친화마을을 활동가들이 여친마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공동체 정신의 뿌리이자 원형인 5·18 광주정신이고 광주정신의 상징이 바로 항쟁의 배를 채웠던 주먹밥이다”며 “주먹밥 만들기 행사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에 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길은 2022년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 근대역사탐방로다. 두휴길, 백단심길, 흥단심길 3코스의 도보투어를 통해 광주여성 백년의 역사를 만나는 도보투어로 두휴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여성교육과 여성선교사를 주제로 하며,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에 투신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 걷는다. 흥단심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최초’의 근대적 직업을 가진 광주여성들의 발자취를 찾는다. 최진화 기자

# 싱어송라이터 닐로 콘서트 ‘들려줄게’

## 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독보적인 음색을 지닌 싱어송라이터 닐로(사진)의 단독 콘서트 오는 5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2015년 첫 싱글 ‘바보’로 데뷔한 닐로는 대표곡 ‘지나오다’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 1위, 연간차트 4위를 기록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뮤지션으로 섬세한 감성을 담은 자작곡을 통해 탄탄한 음원 파워와 독보적인 감성 표현력을 입증해왔다. ‘KBS 블루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방송에서 활약하며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의 주목을 받



고 있다.

“들려줄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닐로의 대표곡 ‘지나오다’를 비롯해 ‘벳’, ‘넋두리’, ‘너에게’, ‘들려줄게’, ‘스쳐지나’, ‘미운 날’ 등을 선보인다. 메인 건반 신성진, 세션 건반 원혜영, 드럼 황희규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이나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품질혁신상품부 장관상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량성분 함유량이 300mg입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